

##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엘리스 먼로의 작품집



### ‘런어웨이’ 엘리스 먼로 지음

현존하는 최고의 단편 작가, 캐나다 최고의 ‘총독문학상’ 3회 수상, 이 시대의 진정한 이야기꾼..

201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엘리스 먼로를 지칭하는 수사다. 캐나다 작가로는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그녀는 마거릿 애트우드, 안 마텔 등과 함께 캐나다를 대표하는 소설가다.

그녀는 1931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윈엄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모피 농장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교사였다.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엘리스 먼로는 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되기를 꿈꿨다.

“다른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을 잘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이 일만큼 끝냈던 것은 없었고, 그러나 내 삶에는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이렇듯 소설 쓰기는 그녀의 인생 전부를 바쳐온 일이었다. 그러나 등단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1968년 서른일곱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행복한 그림자의 춤’을 발표하며 작가로 데뷔한다.

이 작품으로 그녀는 캐나다 주요 문학상인 총독문학상을 수상하며 단숨에 주목받는 작가로 떠오른다. 단편 창작에 몰두해온 그녀는 흔히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에 비견된다. 일부 평론가들은 작품에 반전이 많다는 점을 들어 미국 작가 오 헨리와 유사성이 있다고도 말한다.

엘리스 먼로의 필력이 고스란히 응축된 문제의 화제작 ‘런어웨이’가 나왔다. 2004년 출간 이후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캐나다의 영예로운 문학상인 길러 상을 안겨준 작품집이다. 여기에는 표제작 ‘런어웨이’뿐 아니라 ‘우연’, ‘머지않아’, ‘열정’ 등 모두 여덟 편의 단편이 수록돼 있다.

소설집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주위에서 흔히 마주칠 법한 이들로 제각기 상처나 사연을 지닌 평범한 사람들이다.

남편과의 삶에 찌들어 도피를 꾀하는 ‘런어웨이’의 칼라, 기차에서 우연히 낯선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우연’의 줄리엣,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떠도는 ‘열정’의 그레이스는 바로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다.

작가는 얼핏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소재를 미려한 수사나 기교 없이 담담하게 그려낸다. 그러나 이 같은 미묘한 일상은 현실이라는 의외성과 맞물려 의미 있는 서사로 변주된다.

표제작 ‘런어웨이’는 작가의 문학관이 명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남편과의 불화와 찌든 삶을 견디지 못한 칼라는 도피를 꿈꾼다. 이웃 주민 실비아가 자신의 친구가 사는 토론토로 얘기를 꺼낸다. 칼라는 토론토로 가는 버스를 타고 새로운 삶을 기대한다.

그러나 독자들의 예상과 달리 칼라는 중간에서 내리고 만다. 한술 떠 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데려가라고 말한다. 도피 끝에 또 다

른 뗏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것이다. 소설적 진실은 잘못된 결혼생활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너머의 삶에 드리워진 무수히 많은 뗏을 주인공이 인식했다는 점이다.

작가는 이처럼 복잡 미묘한 인간의 심리를 명징하면서도 현실감 있게 직조해낸다. 스웨덴 한림원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할 배경으로 “심리적인 리얼리즘을 담았다”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웅진문학인쇄본 6·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조선’의 책으로 들여다 본 독서문화사

###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

강명관 지음



책과 지식의 역사는 삶을 향한 끝없는 욕망의 발현이다. 조선의 지식인들도 책을 향한 무한한 열정을 품었다. 그들은 인격을 완성하고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기 위해 책에 의지했다.

그간 고전으로 대중들과 소통을 해온 인문학자 강명관(부산대 한문학과) 교수가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를 펴냈다. 서양의 것이 아닌 ‘조선’의 책으로 책과 지식, 독서의 문화사를 들여다본 인문서다.

저자는 2003년 무렵 이 책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 초고를 마련했지만 건강 악화로 답고를 하지 못했다. “언젠가 시간이 허락되면 이 문제를 다루고 싶다”고 결심했던 차에 틈틈이 정리해온 자료와 문헌 등을

파헤쳐 한 권의 책으로 완성했다. 오래 공을 들인 시간만큼 사유는 깊어졌고 이야기거리는 풍부해졌다.

저자가 주목하는 구체적인 질문들은 이것이다. 조선시대 책의 인쇄와 유통 양상은 어떠한가? 국가와 사회의 틀을 설계하고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통되었는가? 책 값은 얼마였으며 중요한 서적의 탄생과 소멸은 어떠한가?

책에는 조선의 책과 지식생산의 문제를 둘러싸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주제가 망라되어 있다. 이처럼 저자는 ‘지식’과 ‘체제’ 문제를 주제로 전반적인 조선의 책과 역사를 펼쳐보인다. 〈천년의 상상·2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찬욱·최동훈·이명세 감독에게 듣는 영화이야기

### ‘이동진의 부메랑 인터뷰...’

이동진 지음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올드보이’의 박찬욱, ‘타짜’의 최동훈,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이명세 감독과 나눈 인터뷰를 담은 책이 출간됐다.

“이동진의 부메랑 인터뷰 그 영화의 시간”은 영화 속 대사에서 끌어낸 질문을 통해 감독들의 삶과 작품세계를 세세하게 들여다본다.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열광적인 반응을 모았던 작품이 만들어진 과정과 연출 의도 등이 다각도로 조명된다.

이 책은 지난 2009년 출간한 ‘이동진의 부메랑 인터뷰-그 영화의 비밀’에 이어지는 ‘부메랑 인터뷰’ 시리즈 두 번째로 영화와 관련한 깊고 내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공동경비구역 JSA’와 ‘올드보이’ 이후 강력한 예술적 파워를 갖게 된 박찬욱 감독에 대해 저자는 “한국 대중영화 전반에 걸쳐 다른 감각과 화법으로 거대한 충격과를 던졌다”고 평한다.

대위작 ‘범죄의 재구성’부터 장르영화 연출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최근작 ‘도둑들’로 흥행파워까지 갖게 된 최동훈 감독에 대해서는 “이야기에 대한 욕망과 재능을 갖춘 감독”이라고 말한다.

자타가 공인하는 스타일리스트 이명세 감독과의 인터뷰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영화 언어를 찾아서 오랜 세월을 걸어왔지만 아직도 길 위에 있는 ‘영화주의자’”라고 규정한다. 〈예담·2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다석 류영모의 삶과 철학

### ‘깨달음 공부’

박영호 지음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말과 글로 철학을 했던 최초의 철학자이자 함석헌과 김홍도 등과 20세기 한국 기독교 사상계를 이끈 다석 류영모(1890~1981)의 사상을 담은 책이 나왔다. 다석의 제자이자 ‘다석학회’ 고문인 박영호씨가 펴낸 ‘깨달음 공부’는 류영모가 일평생 성찰했던 삶과 죽음, 깨달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류영모는 복을 비는 기복 신앙으로

전락한 현실의 기독교와 여타 종교를 비판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영성 신앙을 되찾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또한 그는 부와 명예 그리고 육신의 만족에서 느끼는 행복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신의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역설한다.

“기복 신앙에서 영성 신앙으로, 출세 교육에서 인성 교육으로 돌아서는 길만이 자신의 나라, 부패의 나라, 싸움의 나라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길이다.” 〈교양인·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열려라 아가리’

홍세화·김민웅 지음



“나는 빠리의 운전사”로 유명한 홍세화 씨와 목회자이자 언론인인 김민웅 씨가 시사 정치 패담집 ‘열려라 아가리’를 펴냈다. ‘아가리’는 순수한 우리말 ‘입’을 뜻한다.

이들은 새 정부가 들어선지 일 년이 되어가지만 경제민주화, 사회복지 같은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주목한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은 목살당하고 시민들은 희망을 선택하는 용기보다 체념하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민주주의 권력의 주체는

### 시민들이여! 희망을 외쳐라

시민이고 시민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아가리’를 열었으며 시민 개인의 성찰과 실천만이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고 역설한다.

두 저자는 대선 결과와 통진당 사태는 진보 세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집권 세력의 ‘종북몰이’도 원인이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진보 세력의 정치적 미숙과 오판, 무지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일상이상·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좋은 대중음악이란? 좋은 대중음악평론은?

### ‘노래 풍경’

장유정 지음



대중음악이란 무엇일까? 문자 그대로 대중이 향유하는 음악이다. 오랜 기간 대중과 함께해오면서 그들의 삶을 노래했고 위로해 왔다.

이런 대중음악을 저급하다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같은 평가를 하는 것일까. 사실 대중음악을 단순히 ‘좋다’, ‘나쁘다’, ‘고급스럽다’, ‘저급하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대중음악에는 쉽게 평가하기 어려운 무수한 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중음악평론가 장유정 단국대 교수의 음악산문집 ‘노래 풍경’은 대중음악이 품고 있는 결을 세심하게 살핀다. 1930년대 모던 재즈송에서부터 유재하와 김수

철을 거쳐 2NE1에 이르기까지 대중의 마음을 울리고 웃겼던 대중음악의 속살을 들여다본다.

장유정이 말하는 대중음악은 무엇이고, 대중음악을 비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좋은 대중음악이란 무엇일까? 만일 그것이 취향의 문제라면 좋은 대중음악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과 그를 찾기 위한 여정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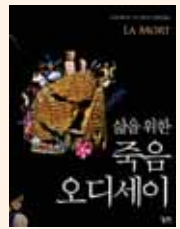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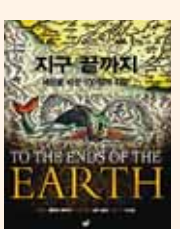
장유정은 책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아울러 ‘좋은’ 대중음악이 무엇인지 독자들도 함께 고민해보자 한다고 얘기한다. 책 뒤에는 장유정 교수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제작한 음반 ‘장유정이 부르는 모던 조선-1930년대 재즈송’을 붙였다. 〈알마·1만98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신간

▲장사의 기술=“복에 개성상인, 남에 병영상인”이라는 말이 있다. 병영상인은 조선 태종 17년(1417)에 군사 시절인 전라병영이 강진군 병영면으로 옮겨오면서 세력을 형성한 상인 집단이다.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 600년이나 이어지고 있다. 책은 중농역사 정책을 펼치던 조선 시대에 전국적으로 세력을 확대했던 병영상인만의 상업 역사와 노하우를 오늘날에 되살렸다는 의의를 갖는다. 〈한국경제신문·1만5000원〉

▲우리의 한시 삼백수 7인절구편=시와 멀어진 세상에 정민 교수가 던지는 단 일곱 자의 깊은 울림. 깊은 고전의 감성과 정수가 배어든 우리 한시 삼백수. 삼국부터 근대까지 우리 7인절구 백미를 거러 뽑았다. 원문에는 독음을 달아 독자들이 찾아보기 쉽게 했으며 우리말로 번역한 시는 3.4조의 리듬을 타고 읽히도록 했다. 날마다 한 수씩 읽어나가도 휴일을 빼고 나면 근한 해 살림에 가깝다. 〈김영사·1만9800원〉

▲지구 끝까지=“지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대담한 주장은 책에 실린 100장의 지도를 통해 검증된다. 문자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려진 최초의 지도를 보면, 세상을 재현하는 그 탁월한 능력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 지도가 가진,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사물, 개념, 조건, 과정들을 공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은 인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 가장 오래된 것이 지도였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푸른길·2만8000원〉



▲삶을 위한 죽음 오디세이=생의 마지막 비밀, 죽음 현상을 과학적·철학적·예술적으로 밝혀낸다. 죽음은 오랜 옛날부터 예술, 그림, 조각, 사진 작품의 소재가 돼 왔다. 책에 실린 풍성한 시각자료는 생명의 시작과 끝이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운 모험 그 자체인지 실감하게 한다. 여기에 생명과 노화, 질병, 죽음에 관한 최신 과학, 의학 연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다양한 도표가 더해져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구리·2만5000원〉

▲명장, 그들은 이기는 싸움만 한다=전쟁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위대한 지휘관들의 미덕과 전술에는 공통점과 연결성이 있다. 효율적인 조직 운용, 다양한 구성원의 특성 파악, 승패를 결정하는 심미안, 실전에 뛰어드는 용기와 신념, 자신에 대한 확신과 가능성 등으로 군대를 이끌었으며, 실전 상황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성공적으로 구사했다. 전쟁사에 신화로 남은 명장 8인과 그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전략과 전술의 비결을 분석했다. 〈위즈덤하우스·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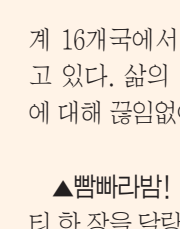
▲배짱 엄마의 착한 육아=평범한 초보 엄마, 육아의 달인이 되다! 네이버 1등 육아카페 ‘맘스홀릭’의 엄마멘토 송선형이 들려주는 탄생에서 1년까지 아이 키우는 즐거움, 세 아이를 키우는 동안 좌충우돌하며 쌓아 올린 특별한 육아 노하우를 소개한다. 출산, 산후 조리, 모유 수유에서 천 가지귀 사용까지...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육아 경험을 그대로 담았다. 〈김영사·1만2000원〉



▲오늘이=제주도 심방(무당의 제주 방언)을 입에서 전승되다가 학자들이 채록해 우리의 귀한 신화 자산이 된 제주 신화를 소개한다. ‘오늘이’와 함께 제주 신화의 신비스런 이야기로 손꼽히는 ‘서천 꽃밭 한라궁이’, ‘허웅 아기’ 등을 함께 묶어 제주 신화의 특성을 느끼도록 했다. 〈알라딘북스·1만원〉

▲우리아이 첫 지식 과학책=호기심 충만한 아이들이 알고 싶어 하는 수많은 궁금증에 친절히 대답해주고 우리의 몸부터 음식물의 생체, 지구 과학과 우주 과학 등 폭넓은 분야에 이르는 질문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 준다. 아이들의 관심이 한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고 고루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해 아이들이 지식 성장을 도와준다. 〈아름다운사람들·1만8000원〉

▲자꾸자꾸 생각나=어수룩하고 겁 많은 주인공 도미니크와 장난기 가득한 앙토니, 소심한 자비에 등 개성 뚜렷한 친구들이 등장한다. 도미니크의 1인칭 시점으로 그려지는 간결하



고 속도감 있는 문장과 유쾌한 문체는 저학년 아이들에게 읽는 재미를 알게 하고, 이성에 눈뜨기 시작하는 아이들에 공감이라는 즐거움을 준다. 〈시공주니어·6000원〉

▲푸른 별 아이들=영웅과 모험, 아이슬란드의 장엄한 자연이 담겨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아동문학으로는 처음으로 아이슬란드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전 세계 16개국에서 번역 출판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든다. 〈양철북·1만2000원〉

▲빨간머리! 뽀스맨 8=눈부신 대머리에 팬티 한 장을 달랑 걸치고, 빨간 망토를 휘날리며 날아가는 뽀스맨. 그의 정체는 감씨와 꼬보이네 학교 교장 선생님. 자신들의 말썽을 막으려는 교장 선생님께서 두 장난꾸러기가 최면을 걸어 뽀스맨으로 변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영웅 뽀스맨이 이번에는 불량 뽀스맨과 함께 나타난다. 〈주니어김영사·8000원〉

## 어린이 책꽂이

